

세계적 양산지의 환상적인 골프장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함평 다이내스티 컨트리 클럽
인터넷회원 주중그림피 할인
5일전 부킹 1만원 할인
3일전 부킹 2만원 할인
1일전 부킹 3만원 할인
예약 : www.hpdynasty.com 061)320-7700, 7714



이선화 '매치플레이 여왕'

HSBC 챔피언십 우승
LPGA 통산 2번째 정상
상금 랭킹 5위로 '껌충'

'리틀 박세리' 이선화(21·CJ)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대회 가운데 두번째로 우승 상금이 많은 HSBC매치플레이챔피언십 정상에 올랐다.
이선화는 23일 미국 뉴욕주 뉴로셀의 와이카길골프장(파71·6천209야드)에서 열린 대회 결승전에서 미야자토 아이(일본)를 2홀차로 꺾고 우승컵을 차지했다.
2005년 창설된 이 대회에서 첫 한국인 우승자로 이름을 올린 이선화는 우승 상금 50만 달러를 받아 상금랭킹 25위에서 5위(81만 499달러)로 초고소득 엘리트층을 뒀다.

한국여자프로골프 최연소 프로 자격 획득, 최연소 우승 기록을 갖고 있는 이선화는 2005년 LPGA 2부투어 상금왕에 이어 작년 LPGA 투어 신인왕 등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코리언 시스템'의 차세대 리더로 꼽혀온 선수. 박세리처럼 일찌감치 천재성을 발휘한다며 박세리의 뒤를 이을 재목이라고 해서 일찌감치 '리틀 박세리'라고 불려왔다. LPGA투어에서는 작년 슐라이트클래스에 이어 통산 두번째 우승이다.

체격은 크지 않지만 견고한 하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견실한 스윙과 표정의 변화가 없는 '포커 페이스' 등으로 '돌부처'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이선화는 파죽지세로 결승까지 올라와 우승까지 차지해 매치플레이의 여왕'으로 우뚝 섰다.
1라운드에서 이선화는 43번 시드의 다이애나 달레시오(미국)를 맞아 1홀차로 제쳤고 2라운드 상대는 11번 시드의 신지애(19·하이마트)를 꺾고 올라온 54번 시드의 제니스 무디(스웨덴)였다.

무디에 5홀차의 일방적인 승리를 거둔 이선화는 16강전에서 27번 시드의 로라 데이비스(잉글랜드)를 만나 2홀차로 이겼다. 8강전에서는 안니카 소렌스탐을 이긴 35번 시드의 린지 라이트(미국)를 꺾었다.
이선화는 결승 진출의 최대 고비였던 대선배 김미현과 준결승에서 초반 접전 끝에 중반 한때 3홀차 리드를 잡아 2홀차 승리를 올렸다.

결승 상대 미야자토는 일본에서 무려 14승이나 올려 '국인 여동생'으로 대접받고 있고 LPGA 투어 켈리퍼잉스에서 수석 합격한 이선화 못지 않은 골프 신동.
1번홀(파5)에서 버디를 잡아 기선을 잡은 이선화는 2번홀(파4) 보기로 추축했지만 3번홀(파4)에서 파를 지키면서 보기를 한 미야자토에 다시 앞서 나갔다. 이어진 4번홀(파3)에서 미야자토가 파세이브에 실패한 덕에 2타차 리드를 잡은 이선화는 미야자토가 1홀차로 좁혀오면 다음 홀에서 2타차로 달아나면서 좁혀 추격의 발미를 내주지 않았다. 이선화는 2홀차 리드를 안고 맞은 17번홀(파3)에서 미야자토가 버디 찬스를 만들자 더 먼 거리에서 버디를 잡아내며 승부에 싸움을 벌였다.

김미현은 3~4위전에서 마리아 요르트(스웨덴)를 2홀차로 누르고 3위 상금 20만달러를 손에 넣어 아쉬움을 다 소나마 달았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23일 미국 뉴욕주 뉴로셀 와이카길골프장에서 열린 LPGA 투어 HSBC 매치플레이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한 이선화(왼쪽)가 경기 후 준우승자인 미야자토 아이와 포옹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선화는 누구
국내 최연소 기록 3개 보유
박세리 이을 차세대 주자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에서 우승 상금이 US 여자오픈(66만달러) 다음으로 많은 50만달러 짜리 HSBC매치플레이챔피언십에서 한국 최초로 우승컵을 안은 이선화(21·CJ)는 박세리(30·CJ), 김미현(30·KTF) 등의 뒤를 이을 차세대 주자로 일찌감치 주목을 받아온 선수였다.
한국여자프로골프 역사에 '최연소 기록' 3개를 보유하고 있는 '골프천재'로 세계 정상급 선수로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아왔던 그는 기대대로 LPGA 투어에서 2년 동안 두 차례 우승을 일궈냈다.
지난 2000년 천안서여중 재학 중이던 만 14세 때 프로테스트에 합격한 이선화는 '최연소 여자 프로골프 선수'로 이름을 올렸다. 당시 1위는 장정(27·기업은행)이었고 이선화는 2위였다.
더구나 프로테스트에 합격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여자프로골프2부투어인 미사일 드림투어 1차 대회에서 우승컵을 안아 최연소 우승 기록을 세웠다.

또 이듬해 정규투어에 합류한 이선화는 MC스퀘어 자대회에서 강수연(30·삼성전자), 정일미(34·기가골프), 신현주(26·하이마트) 등 쟁쟁한 선수들을 2위로 밀어내고 우승했다.
당시 만15세3개월5일 나이로 우승해 한국프로골프 사상 최연소 정규대회 우승이라는 새로운 기록을 썼다.
이선화의 최연소 기록 3개는 2001년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주최 '만 17세 이하 선수의 프로 테스트 응시'를 아예 금지해버려 앞으로도 깨지지 않을 '불멸의 기록'으로 남았다.
미국 진출도 남달리 빨랐다. 지난 2004년 LPGA 2부투어인 퓨처스투어에 진출한 이선화는 첫해에는 우승없이 상금랭킹 10위에 그쳐 '재수(再修)'의 길을 걸어야 했다.

그러나 이듬해인 2005년 시즌 이선화는 1승을 포함해 상금랭킹 1위에 올라 LPGA 투어 직행 티켓을 따내 스타 탄생의 예고를 했다.
이선화는 슐라이트클래스 우승과 준우승 3차례를 포함해 '톱10'에 7차례나 오르며 신인왕을 차지했다.
올해는 HSBC매치플레이 이전까지 15개 대회에서 '톱10' 세 차례로 작년보다 다소 성적이 처지는 듯 했지만 이번 대회 우승으로 2년차 징크스 우려를 말끔히 씻어냈다.
이선화의 아이언샷은 힘들이지 않고도 거리와 정확성을 보장하는 간결한 스윙이라고 평평이 나 있다. 또 이선화의 장점은 의외로 나이에 걸맞지 않게 두둑한 배짱이다. '돌부처'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경기 때 표정 변화가 거의 없고 위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최경주 대회 첫 톱 10

브리시시 오픈 공동 8위

'숨은 강자' 파드리그 헤링턴(36·아일랜드)이 메이저대회 무관의 한을 풀었다. 최경주(37·나이키골프)는 역전 우승은 이루지 못했지만 한국 선수로는 브리티시 오픈골프대회 사상 처음으로 '톱10'에 입성했다.
헤링턴은 23일 스코틀랜드 커누스티골프링크스(파71·7천421야드)에서 열린 대회 4라운드에서 4언더파 67타를 뺏아내 2타를 잃은 세르히오 가르시아(스페인)를 따라 잡은 뒤 4개홀 연장전에서 버디 1개, 보기 1개를 묶어 이븐파를 쳐 1오버파에 그친 가르시아를 따돌렸다.
헤링턴과 같은 공동3위로 최종 라운드에 나서 실낱같은 역전 우승을 기대했던 최경주는 버디 3개, 더블보기 1개, 보기 1개를 묶어 이븐파 71타를 쳐 기대에 다소

미치지 못했다.
최종 합계 3언더파 281타로 대회를 마친 최경주는 그러나 공동8위에 올라 자신의 대회 첫 '톱10'이자 한국 선수로는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타이거 우즈(미국)는 1타 밖에 줄이지 못해 공동12위(2언더파 282타)에 머물러 대회 3연패가 무산됐다.

한편 최경주는 미국의 스포츠전문지 스포츠일러스트레이티드(SI)가 선정한 '메이저 우승이 아직 없는 선수 베스트 10'에 뽑혔다. SI는 23일 인터넷판에 세계랭킹을 기준으로 상위권에 올라 있으면서도 마스터스, US오픈, 브리티시오픈, PGA 챔피언십 등 4개의 메이저에서 아직 타이틀을 획득하지 못한 선수들을 소개했다.
세계랭킹 12위인 최경주는 애덤 스코트(5위·호주), 헨릭 스텐슨(7위·스웨덴), 루크 도널드(9위·잉글랜드)에 이어 네 번째로 뽑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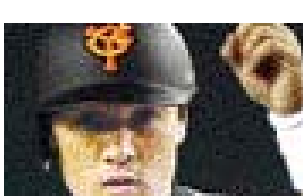
위창수 2위 최고 성적

PGA US뱅크챔피언십

위창수(35·테일러메이드)가 미국프로골프(PGA)투어 시즌 두 번째 '톱10'을 개인통산 최고 성적인 준우승으로 장식했다. 위창수는 23일(한국시간) 위스콘신주 밀워키 브라운디언파크 골프코스(파70·6천739야드)에서 열린 US뱅크챔피언십 최종 라운드에서 2언더파 70타를 쳐 4라운드 합계 10언더파 270타로 우승자 조 오길비(미국·266타)에 이어 공동 2위를 차지했다.
3라운드에서 선두에 6타 뒤져 역전은 힘겨웠지만 공동 5위에 올라 '톱10' 진입에 푸른 신호등을 켜던 위창수는 언더파 스코어를 내 준우승까지 순위를 끌어 올렸다. 위창수는 2005년 서던팜뷰로클래스에서 5위에 오른 것이 PGA 투어에서 거둔 최고 성적이었으며 올해는 16개 대회에 출전

해 1월 뷰익인비테이셔널 공동 9위가 유일한 '톱10'이었다.
시즌 상금이 40만달러에 불과해 내년 투어 카드 유지에 어려움이 예상됐으나 저지 않은 상금을 보태 PGA 투어 잔류 가능성이 그만큼 커졌다.

위창수는 1번홀(파4)에서 2타를 잃었는데 중반을 넘어서도 만회를 못해 10위권 밖으로 밀려날 뻔 했으나 14번홀(파3) 버디에 이어 16~18번홀에서 3개를 연속 버디를 기록하는 뒷심을 발휘했다.
재미교포 앤서니 김(22·나이키골프)도 1언더파 69타를 쳐 전남보다 11계단 오른 공동 37위(2언더파 278타)로 대회를 마쳤다.
오길비는 3언더파 67타를 쳐 4라운드 합계 14언더파 266타로 위창수 등 2위 그룹을 4타차로 여유있게 따돌리고 생애 첫 우승을 일궈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이승엽 오늘 1군 복귀

요코하마진 정상 출전

원승엽이 관철점으로 12일 1군 엔트리에서 제외된 일본프로야구 이승엽(31·요미우리 자이언츠)이 24일부터 시작되는 요코하마 베이스타스와 후반기 첫 경기부터 정상 출장할 것으로 보인다.
스포츠전문지 '닛칸스포츠'와 '산케이스포츠'는 23일 인터넷판에서 전날 이승엽이 가와사키 자이언츠 구장에서 열린 1군 전

체 훈련에 참가했고 40번을 스윙해 6차례나 팬스를 넘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부상에서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니지만 이승엽이 팀을 위해 후반기가 시작되는 24일부터 정상적으로 출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하라 하루키 수석 코치도 "23일 훈련을 지켜봐왔지만 이승엽 본인이 원하면 하라 다쓰노리 감독도 출장을 허락할 것"이라며 이승엽의 출장을 기정 사실로 받아들였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어? 호랑이 한여름 힘 솟네"

최희섭 KIA 금주의 프로야구

“일단 서머리그에 올인하겠다.”
서정환 KIA감독은 전반기 막판 꼴찌를 헤매고 있을 때 “서머리그를 기대해 달라”고 강조했다. 서 감독은 “서머리그를 기점으로 부상 선수들이 모두 복귀한다. 전력이 갖춰지면 올 시즌 막판 돌풍도 일으킬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서 감독의 전망처럼 KIA는 지난 15일부터 시작된 서머리그에서 3승 1패로 삼성과 공동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아직 정규시즌 성적은 선두 SK에 17게임차 꼴찌지만 모처럼만의 상승세가 반갑기만 하다. 4위 LG와 9.5게임차로 뒤진 KIA로선 연속 행진만 이어진다면 탈꼴찌는 물론 포스트시즌 진출 불씨도 살려낼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상승세의 중심엔 메이저리그 출신인 4번타자 최희섭이 버티고 있다.
최희섭은 지난 21일 수원 현대전에서 국내 프로야구 데뷔 후 첫 홈런을 터트리는 등 20~22일 현대와의 3연전에서 12타수 5안타 3타점의 맹타를 휘둘렀

최희섭·이대진 가세 큰힘
서머리그 공동 선두 질주
롯데·삼성과 안방 6연전

다. 타율도 왼쪽 늑골 미세 골절상으로 2군에 내려가기 전 0.143에서 0.308로 점프했다. 최희섭은 또 복귀 후 7경기에서 타율 0.400(25타수 10안타), 타점 8개로 필필 날고 있다. KIA는 최희섭의 1군 복귀 후 치른 7경기에서 5승2패를 기록할 정도로 '최희섭 효과'를 푼푼히 누리고 있는 상황이다.

최희섭이 타선에서 중심을 잡아주면서 이용규와 김종국, 이현근 등이 동반 상승의 시너지 효과를 보고 있다는 점도 고무적이다. 여기에 만행 이종범도 24일부터 1군에 합류, 팀 전력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마운드도 안정적이다. 윤석민-스코비-이대진으로 이어지는 3선발전에 김희걸 등이 버티고 있다. 특히 최근 1군에 합류한 이대진은 2경기 연속 승리투수로 이름을 올리는 등 최상의 컨디션을 보이고 있다.
또 로드리게스-한기주로 이어지는 중간과 마무리 계투조는 8개 구단 중 최고의 조합으로 꼽힌다. KIA는 이번 주 안방 광주에서 롯데(24~26일), 삼성(27~29일)과 6연전을 펼친다.
1차 목표는 탈꼴찌다. 6연전에서 좋은 모습만 보여준다면 4강 진입의 발판도 마련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행히 7위 롯데는 침체기다. 주말에 만나는 삼성

Table with columns: 순위, 팀, 승, 패, 무, 승률, 게임지, 연속. Row 1: SK 48 31 5 0.608 - 1승. Row 2: 두산 44 37 2 0.543 5.0 2패. Row 3: 한화 41 37 2 0.526 6.5 3패. Row 4: LG 39 37 4 0.513 7.5 2승. Row 5: 삼성 39 39 0 0.500 8.5 3승. Row 6: 현대 38 43 0 0.469 11.0 2패. Row 7: 롯데 35 43 3 0.449 12.5 1패. Row 8: KIA 33 50 1 0.398 17.0 2승.

이 상승세를 타고 있긴 하지만 안방경기인데다 올 시즌 상대 전적 6승 5패로 앞서고 있는 만큼 두 팀 모두 그리 위력적인 상대는 아닌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대진과 최희섭의 가세로 한껏 힘을 얻은 KIA호가 후반기에 불어오는 순풍을 타고 쾌속 항해를 이어갈지 기대되는 한자다.
한편 KIA는 최희섭이 홈 경기 첫 홈런을 터트릴 경우 홈런볼을 주는 관중에게 드립세탁기를 선물로 증정하고, 당일 입장 관중 모두에게 올 시즌 한 경기 무료 입장권의 혜택을 준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